

초청: 발표에서 노예제와 탈식민화의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생태적·경제적 위기를 다루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의 작업 보고서를 동봉합니다.

시대를 읽어보면 우리가 위기의 세계에 살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태 재앙, 경제적 불평등, 전례 없는 이주 현상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생태적 위협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한편으로는 산불과 홍수를, 다른 한편으로는 가뭄을 초래하며 식량 불안정, 성별 및 종교적 폭력과 편협함, 인종적 불의와 전쟁, 지정학적 불확실성, 집단 학살, 그리고 식민주의 프로젝트와 상상력의 지속적인 존재를 동반합니다.

지구와 그 자원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 그리고 자연 자원의 무한한 가용성에 대한 무분별한 믿음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 위기와 임박한 생태 재앙의 합류는, 지구와 그 주민들을 위한 생명의 총만함을 확증하고 보장하는 변혁적 예언적 리더십을 제공하겠다는 교회의 헌신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시 징크(Jesse A. Zink)가 '위기 형태의 세계(Crisis-Shape World)'라 명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교회 연합체로서, 회원 교회로서, 그리고 개별 그리스도인으로서—그것은 바로 목시록적 명료함으로, 즉 세상을 형성하는 권력과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번 총회에 상정된 정의 선언문이 던지는 질문이자 초대입니다.

정의 선언문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증거 대부분을 부각시키며, 작용하는 구조와 권력,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서사에 주목합니다. 또한 분별, 고백, 증언, 언약, 헌신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의 실현을 위한 동반자로 부르심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신실할 것인지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여기서 "정의는 단순한 윤리적 요구가 아니라 신성한 본성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국의 힘에 의해 주변화된 사람들이 경제적·생태적 위기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건강, 경제적 취약성, 신체적 취약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역사적·체계적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져 기후 변화의 결과에 대처하는 회복탄력성을 갖추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성찰에서 저는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 반카스트 운동"과 관련된 정의 문서의 전략 (h)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언약과 인종 및 카스트 해체' 섹션을 고려하여, 대서양 노예 무역의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유의사항을 밝힙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의 경험과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억압의 위계질서를 설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은 다음 문헌에서 확인됩니다: 《폐지되었으나 파괴되지는 않았다: 21세기 노예제》(2007,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개혁교회운동 및 세계여성운동)

소외된 공동체를 고려할 때, 억압의 위계질서를 수용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사람들의 억압 형태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억압도 다른 형태보다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억압자들을 모방하거나 억압적 모델을 재생산하는 헛된 노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카스트, 인종, 성별, 민족성 및 기타 주변화 지표와 관련된 억압을 해체하는 대안적 모델을 창출해야 합니다. 노예화된 민족들은 전체 헤게모니적 권력 체제에 침투하여 이를 교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전체 헤게모니적 권력 체제를 지탱하는 논리와 가정들, 명시된 것과 암묵적인 것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억압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작업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

대서양 노예 무역의 일환으로 1,5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인간을 상품화하고 공동체에 트라우마를 안기며 창조물을 착취한 무역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이 '법적으로' 폐지된 지 거의 2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파괴와 혼란의 유산은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까지를 아프리카계 후손의 10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10년의 시작은 2010년 더반 세계 인종차별·인종적 차별·외국인 혐오 및 관련 불관용 반대 회의의 결과였으며,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하는 2억 명 이상의 아프리카계 후손들이 차별, 배제, 경제적 격차, 의료 접근성 부족, 빈곤 및 주변화의 도전에 계속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10년은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현실을 드러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10년은 아프리카계 후손과 디아스포라 아프리카인들이 대우받는 방식에서 반흑인 인종주의가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고 생태계 위기와 창조와의 관계를 드러냈다. 2007년 노예제 폐지 2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아프리카교회협의회(WARC), 세계여성운동(CWM)의 에큐메니컬 모임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억압은 물리적 폭력과 강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언어의 담론적 차원에서도 작동한다. 지식의 구성 방식과 현실 및 인간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억압의 요소가 드러난다. 대서양 횡단 아프리카인 무역과 식민주의가 근대성의 출현에 필수적 요소였기에, 근대성은 인간됨, 창조, 신에 관한 개념과 관련된 수많은 범주들을 생산해냈으며, 이 범주들은 종종 당연시된다. 우리 자신과 상황, 관계를 명명하고 재명명하는 데에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인간과 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범주들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이 만든 범주들을 검토하고 비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낡은 틀에 계속 노예처럼 얽매어 억압 체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흑인 인종차별에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구에 계속되는 해악에 빛을 비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안된 작업 계획:

1. 이 교회가 단순히 반인종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반흑인 인종주의를 명시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중 흑인 신체를 가진 이들이 식민주의 프로젝트와 그 선행 개념인 '백인 우월주의'의 상처와 상흔을 계속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흑인

흑인 신체를 지닌 우리 모두가 식민주의 프로젝트와 그 선행 개념인 '백인 우월주의'의 상처와 고통을 여전히 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흑인 인종차별의 현실을 명명하는 것은 시대를 현실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반흑인 인종주의는 기회 부족,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높은 실업률, 심각한 빈곤율, 형사 사법 제도 내 과도한 대표성 등 사회에서 아프리카계 후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주변화의 유산으로 드러납니다. 반흑인 인종주의를 명명함으로써 경제적·생태적 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논의의 자리에 참여하여 그들의 지혜와 재능을 투쟁에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2. 둘째, 협력의 정신에 따라, 교단은 배상에 중점을 둔 아프리카계 후손을 위한 제2차 10년 계획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고, 유엔(UN) 구조 내에서 배상 문제와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계 후손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007년 성명서 '*폐지되었으나 파괴되지는 않았다*'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때 노예로 살았던 민족들의 치유를 위해 배상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배상은 단순한 금전적 수치를 훨씬 넘어섭니다. 오히려 배상은 저질러진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백, 참회, 회복, 화해를 요구하는 과정이며, 권리를 설정하고, 보상하며,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진실 고백의 과정도 포함합니다. 교회와 사회 모두부터의 배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배상은 실천이자 예언적 행위입니다. 저질러진 잘못을 명명하는 것은 실천 또는 행동-반성 모델이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예언적 행동입니다.*

*배상 과정은 깨진 것을 고치기 위해 모든 당사자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인정하는 관계 회복을 요구한다. 배상은 또한 가해자에게 고백과 회개를 요구하며, 착취당한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선사한다.*

아크라+20 최종 보고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재확인하며, 아크라 신앙고백은 경제적*

*생태적 정의와 따라서 배상적 정의를 포함하여, 소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주민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는 문제와 인간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맥락에서 성경적 명령으로 부상합니다. 레위기 25:8-55에는 귀환과 안식의 과정을 통해 땅과 백성의 번영을 촉진하도록 고안된 희년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서 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저는 공의회가 아프리카 대륙과 디아스포라 출신 회원 교회 대표들을 소집하여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도전과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며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륙이 막대한 인도적·경제적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국가들이 상당한 GDP를 잃고 수백만 명이 가뭄과

생계와 식량 안보를 파괴하는 홍수에 노출되어 위험한 이주를 계속 유발하고 있으며,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함께 대안적 경제 상상력의 기회를 계속 탐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잭 택스(Zac Tax)와 같은 방안과 함께 배상 실현을 위한 메커니즘을 옹호하고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4. 탈식민화-. 우리의 작업은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현 정부가 식민주의의 구조와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합니다. 지속되는 식민주의의 구조와 체제는 고착화되어 스스로를 재생산합니다. 더욱이, 특히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결여된 대부분의 신학은 이러한 식민 체제와 구조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탈식민 신학을 확증하고 교회들 사이에서 이를 장려합니다. 위기와 해결책의 틀은 식민화의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이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서 비롯된 사회 운동들은 탈식민 실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불의를 경험해 온 이들에게 우리 자신을 빚어지고 형성되도록 허용합니다. 식민 지배자들이 노예를 거래하던 방식에서 드러난 인간 상품화는 현대 국가들이 이주 노동자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의 탈식민화는 이주자들의 상황에 주목해야 하며, 인간을 상품화하는 국가들을 규탄해야 합니다.
5. 인종, 성별, 성적 정체성, (장애) 여부, 경제적 지위 등의 문제가 모두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교차적 접근이 중요하다. 나는 우리가 *폐지주의 생태학*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니크 헤이넨과 메건 이바라는 급진적 지리학 저널 <안티포드>에 실린 논문 「폐지주의 생태학: 장소로서의 자유 만들기」에서 *폐지주의 생태학* 개념을 소개한다. 이는 환경 정의와 해방 투쟁을 폐지 이론과 연결하는 비판적 접근으로, 인종적 자본주의, 백인 우월주의, 정착민 식민주의가 어떻게 생태적 피해와 불평등을 초래하는지 강조한다. 이 개념은 환경 인종주의와 생태계 파괴가 감금 시스템과 얽혀 있다고 주장하며, 억압적 체제를 해체하고 모든 존재를 위한 해방된 삶의 방식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와 재산 관계를 재구상함으로써 "자유로서의 장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W.E.B. 듀보이스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6. 방콕 세계 선교 대회(1972-73)의 선언을 상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민지 지배가 각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격권을 부정하므로 반기독교적임을 선언합니다. 어떤 교회도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서는 그러한 체제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배반하지 않고서는 지지할 수 없다.*" 반흑인적 초점에 주목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우리의 신학적 틀이 인간과 피조물의 지속적인 상품화를 지지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인간과 피조물이 상품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한 비판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원 교회들이 신학과 신학적 틀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참여하도록 돕는 자료들을 계속 장려합니다.